

실전 토론 개요서 분반(A02)

논제	인공지능의 예술적 창작성 저작권 인정 논제()			
팀 입장과 역할(천지장조 조() 입장 반대 측:"	구분	역할	학과 이름
		팀장	의견 수렴 및 정리	김도현 건설환경공학부()
		-5 " 팀원	반대의) 근거와 핵심 주장 및 찬성주장의 예상 제시	박지호 생명공학부() 김현서 건설환경공학부() 신유성(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준영 컴퓨터응용수학부()
용어 정의	<p>저작권(창작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다 .</p> <p>창의성이 함유된 예술의 인정은 인간만 가능하다.</p> <p>인공지능의 예술은 인간들의 예술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예술을 만들거나 특정 예술을 모방및 모티브하여 만들 수 있다.</p>			
핵심 논거	<p>1.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작품을 분석하고 학습하여 제작하는 알고리즘으로 생산된 것으로 인간의 작품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p> <p>->이 논거에 찬성하는 근거로는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이 인간의 예술 작품과 비교하여 독창성이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p> <p>예를 들어, 'AI 화가의 우승..시대의 흐름인가, 예술의 사망인가' 라는 기사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결국 기존에 존재한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인공지능의 예술 작품은 인간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예술 작품에 대한 존중과 책임역시 부족한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작품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 틀림없다.</p> <p>(https://www.yna.co.kr/view/AKR20220904008400009)</p> <p>2.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원작자의 예술 작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므로 원작자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인 간 예술가들의 설자리를 위협할 것이다.</p> <p>->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 작품에서 추출한 패턴이나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생성하는 것이지만, 이는 인간의 예술 작품의 본질적인 표현이나 내용을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것이므로 인간의 예술 작품의 독특한 개성이나 스타일을 손상시킬 수 있다. 만일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가정하면,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인간의 예술 작품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예술 작품과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인간 예술가들의 창작 동기를 저하시키고, 인간 예술가들의 설자리를 위협할 것이다.</p>			

	<p>3. 예술 작품이기 위해서는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가가 부여한 의미 그,작품을 제작한 예술가의 생애 시점 등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의 결과물은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예술성을 인정할 수 없다.</p> <p>->수많은 예술 작품에는 그 예술 작품을 그린 예술가의 심정이나, 표현하고자 했던 바, 그 사람이 처한 상황, 그때 느낀 그 감정등이 녹아들어 있다. 이런 인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서사가 담긴 예술 작품들을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공감하는 내용들까지 인공지능이 모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해 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려한다면, 미래에는 인간보다 우월한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싱글래리티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는 일까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p>
<p>상대방의 핵심 논거 및 상대의 예상된 반박</p>	<p>1.인공지능 또한 어느 회사나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 하에서 쓰이는 도구이므로 저작권 인정이 가능하다.</p> <p>2. 사용자가 직접 주제와 행동 특히 세부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항상 일정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야한다.</p> <p>3. 인공지능이 만든 것 또한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인정해야하며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하여 다른 형태의 아이디어제시와 예술적 표현을 늘릴 수 있어 인정해야한다.</p>

<p>상대방의 핵심 논거 및 상대의 예상된 반박</p>	<p>"A" 일부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율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무작위성을 포함할 수 있다 .이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 이며,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창조적인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발 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공지능 스스로가 새로운 특징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조성을 인정해야하며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p> <p>"B"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 인간과 동등한 창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인 공 지능은 인간이 개발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 공지능 자신만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 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것이 아닌 , 그에 착안하여 또다른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경우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인간이 만든 작품과 구 별되거나 비교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등한 창작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그, 에 따른 저작권도 보장받아야 한다.</p> <p>"C" AI가 인간이 만든 작품을 모방하는 것이 미칠뿐이라 주장하는데 입 간 또한 다 른 창작자의 작품을 모방한다 .인간이라고 예술을 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 다. 또한 는AI학습을 통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 이 . 는 예술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p>
<p>상대 논거에 대한 비판 및 반박에 대한 재반박 대안/</p>	<p>"A" 무작위성은 인공지능 모델에서 조절 가능한 매개변수 중 하나일 수 있다 개발 자는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의 무작위성을 조절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따라서 무작위성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 발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저작권은 제작자에 있다.</p> <p>"B"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인. 공지능이 기 존의 작품이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더라도, 이는 인공지능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입 간의 창작물을 재해석 하거나 재구성한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을 모 방한 것이므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p> <p>"C" 모방은 인간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방식이다 특히예술에서 모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술에는 기미미 코 흥내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아. 우라 (aura)이다. 아우라는 예술가의 삶의 한 시점이면서 예술가의 환경이다 작. 품이 창 작된 시간 , 시대 , 장소가 모두 녹아 있는 집합체이다 약 우라는 작품 그 자체이고 예 술 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간이다 .아무리 가 미미 당 예술가의 방식으로 작품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다 모 방한다 해도 생각하는 인간의 아우 라와 그 역사적 의미가 들어있어야만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p> <p>"C" 물론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모방 은 꽤 나 일리 있는 학습방법이지 만, 사람이 모방을 통해 창작을 하는 반면 인공지능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기에 창작 이 불가능하다 . 그저 짜깁기에 불과하다 .</p>

